

ISSUE & FOCUS

Newsletter 2017-3(3)

사드배치의 경제적 후유증 어떻게 극복할까?

박정동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1. 중국발 사드배치의 후유증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에 대한 부지 제공의 여파로 중국 현지 롯데 사업장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와 이에 따른 영업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7년 3월 8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 수는 55곳이다. 중국 현지에 개점중인 롯데마트 점포 전체가 99곳임을 감안할 때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또한 미국 허쉬와 롯데가 합작으로 설립한 초콜릿 공장(롯데상하이 Food Co)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칠성의 음료 제품 역시 중국의 통관 중단 조치로 수출이 전량 지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대형여행사의 한국 관광객 모객 영업의 중단으로 인해 국내 저가항공사 역시 중국 노선 취항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산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중국내 유통업체도 늘어나는 등 한국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계 대형유통업체인 까르푸, 태국계 유통

업체인 로터스 등이 한국 식품 행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당초 로터스는 이달 22일부터 2주일간 한국 식품 관련 기관 공동으로 자사의 廣東省 내 33개 매장에서 열기로 했던 한국 식품 판촉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중국 국유 유통업체인 華潤萬家是 5월부터 한국 기관과 계획했던 온라인 쇼핑몰 연계 한국 식품 판촉전을 무기한 연기했다. 北京과 上海에서만 총 10개 이상 한국 식품 판촉전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IBK경제연구소가 2017년 3월 8일 발표한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대중국 상품 수출이 5%, 중국인 관광객이 20%, 한류 콘텐츠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 경제가 입을 손실은 76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1조 3775억 달러)의 0.59%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대중국 소비재 수출이 20% 급감하고, 중국 관광객도 20%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0.25% 줄 것으로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의 안기태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센카쿠 영토 분쟁 당시 중국 소비자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이 42% 감소하고, 일본 관광 중국인도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고 언급했다.

2. 일본과 대만의 교훈

일본, 비자 완화하고 면세점 늘려

2012년 9월 일본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였던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 정부는 일본 관광을 금지시켰다. 심지어 대규모 반일(反日) 시위를 열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항공기와 호텔 예약도 무더기로 취소됐다. 2012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6만 9713명이었다. 전년 대비 34% 급감한 수치다.

그러나 일본은 냉정하게 대응했고, 변화를 꾀했다. 비자를 완화하고 면세점을 확대했다. 중국에 한했던 투자처도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시키면서 관광객의 범주를 늘렸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면세 절차를 줄여 면세 품목을 늘린 결과 한국인 관광객도 늘어났다. 다음 해인 2014년에는 오히려 중국 관광객이 83% 증가해 24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사상 최대인 637만 명을 기록했다.

대만, 동남아 국가 등에 무비자 입국 확대

대만 역시 중국의 ‘관광보복’을 받은 나라다. 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양국의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국이 단행한 대만 관광 제한 조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라’는 중국 정부의 압박이었다. 중국의 제재 이후 4개월 연속 대만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30%씩 줄었고, 2016년 10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55%나 줄어들었다. 관광업계 종사자 2만 명이 총통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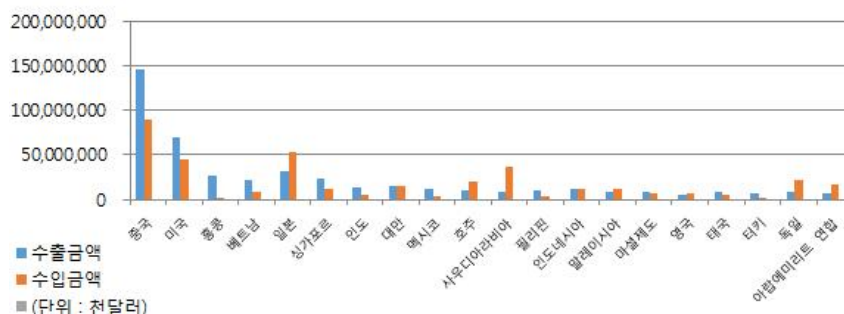
대만은 ‘다변화’로 중국의 보복을 이겨냈다. 중국 대륙 단체 관광객 대신 자유 개별 여행 관광객 유치에 집중했다. 15일로 제한된 중국인 개별 관광객 대만 체류 기간을 30일로 늘린 것이다. 또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관광객을 포섭했다. 동남아 국가 등에 무비자 입국을 확대해 새 시장을 개척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태국에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면서 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

대만 관광시장의 큰 손이었던 일본을 겨냥한 항공사와 호텔 등의 판촉을 확대했고, 당시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로 대만 여행에 관심이 높아진 한국 관광객 유치에도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1069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16.1% 감소했지만, 전체 관광객은 전년보다 2.4%가 늘어났다. 사상 최대 기록이었다.

일본과 대만이 중국의 ‘관광보복’을 이겨낸 방법은 다원화 전략이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펴 오히려 보복조치 이전보다 더 큰 관광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 정부도 규제완화와 관광객 다변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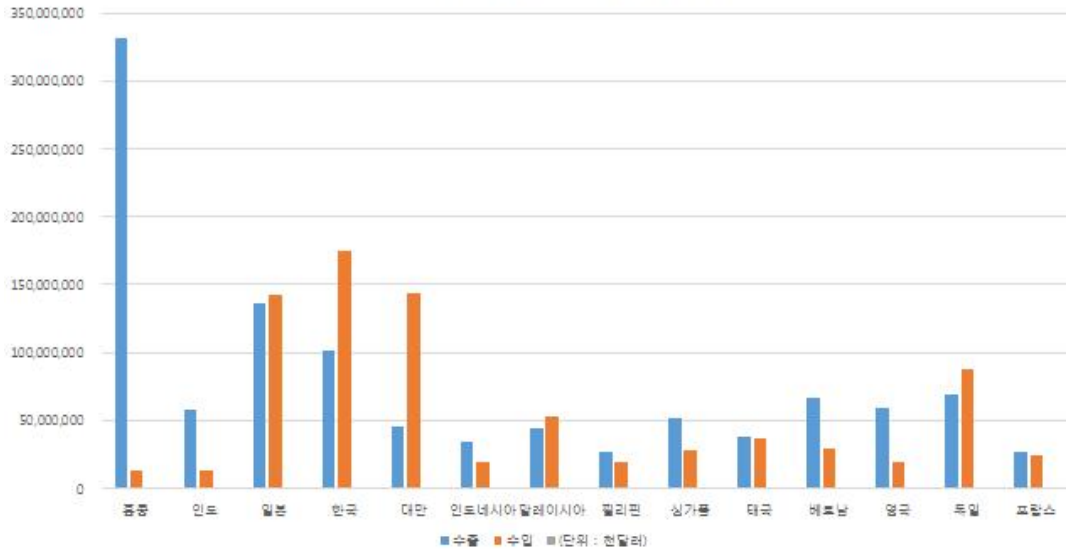
3.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

2015년 한국의 무역상대국 수출입



- 중국, 홍콩 무역수지 80,711,988
- 중국, 홍콩을 제외한 무역수지 -33,561,887
- 총 무역수지 = 47,150,101

2015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2016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즉, 중국 의존도가 26%에 달한다. 중국 한 국가에 대한 의존율이 1/4을 넘는다는 점은 한마디로 한국의 무역은 중국에 올인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릴 정도다. 무역뿐 아니라 투자 역시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약 60% 가까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다. 인적자원 역시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반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한국이 대 중국교역을 통하여 적지 않은 무역흑자를 거두어 들였다. 즉 2010년 이래 한국은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중국과의 교역으로 메꾸어 온 것이다. 하지만 투자의 원칙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는 말이 있다. 위험회피, 분산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금번 중국발 사드배치의 후유증에 한국이 노심초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분산투자라는 투자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산투자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대만과 한국이다. 국가단위로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정도다. 사드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경제보복은 이를 시발점으로 현재 중국이 대규모 무역적자 상태인 한국과의 교역수지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약 70~80%가 중간재 수출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현 체제 속에서는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한국은 언제라도 무역수지 적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시장을 대체할 제3의 시장을 개척해야만 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